



“겸업제한 폐지 4년 유예의 성과는 내 생애 큰 보람 중 하나”

박종학 대한설비건설협회 명예회장



대한설비건설협회 제6대 회장으로서 지난 3년 동안 협회를 이끌며 겸업제한 4년 유예 성과 등 많은 사업을 추진했던 박종학 명예회장을 만나 지난 3년을 회고해 보았다.

▶ 지난 3년을 회고하는 소감은?

“겸업제한 폐지 저지를 위하여 국회 건설교통 위원들을 만나기 위해 동분서주 했던 일,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정산제도 도입과 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해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께 직접 건의했던 일, 기계설비의 업역확대, PQ감점제도 폐지, 인터넷 보증서 발급 등 많은 일들이 아련한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20년 전, 우리업계는 전문건설협회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많은 분들과 함께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 때 뜻을 같이 했던 분들이 3년 전 저를 회장으로 적극 추천해 주셨습니다. 저를 믿고 맡겨주셨던 그 분들께 보답하는 길은 ‘최고는 아닐지라도 최선을 다하는 것’ 이라고 나름대로 각오를 다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회장 임기를 끝내고 보니 그동안 많은 일들이 추억으로 남습니다.

겸업제한 폐지 저지를 위하여 국회 건설교통위원들을 만나기 위해 동분서주 했던 일,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정산제도 도입과 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해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께 직접 건의했던 일, 기계설비의 업역확대, PQ감점제도 폐지, 인터넷 보증서 발급 등 많은 일들이 아련한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여러 모로 부족했던 저이지만 이처럼 크고 작은 성과를 거둔 것은 협회라는 단체가 있었기에 가능했고, 또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 덕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3년의 임기가 끝나고 보니 다소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 제 성심이 부족하지 않았는지 뒤돌아 보게 됩니다.

특히 인터넷증명서 발급 시스템 개발업체에게는 미안한 생각입니다. 그러나 사적인 일이 아니라 공적인 일이었기에 이해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협회 임직원들에게도 좀더 따뜻하게 대해주지 않았음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임금을 적게 올리면서도 많은 일들을 독려했으나 잘 따라 주어서 미안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한 개별법 제정에 대한 사업목표를 세워놓고 추진은 다음 집행부에 넘기게 되어 송구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강석대 회장께서 탁월한 리더십으로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할 것으로 믿습니다. 더구나 이 사업은 우리 모두 참여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또한 우리업계의 꿈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도울 생각입니다.

▶ 3년간의 성과를 말씀해 주신다면?

▶ 겸업제한 폐지 4년 유예의 성과

“지난해 건산법이 개정되었고, 기계설비만 4년 유예라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설비가 25개 공종 중 별도의 공종으로 대우받았다는 것에서 큰 의의를 갖습니다. 이같은 성과를 거둔 것은 우리협회가 작지만 하나로 똘똘 뭉쳐 힘을 발휘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제6대 집행부가 들어선 2005년 초 국무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에서 일반·전문 간의 겸업제한을 폐지하겠다는 전격적인 결정이 있었습니다.

또한 정부도 선진국형 건설생산체계 개편 의지에 따라 겸업제한 폐지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우리협회는 기계설비의 특성과 겸업제한 폐지의 불합리한 점을 설명하고 형평에 맞는 법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정부부처를 비롯한 국회·연구기관 등 관련기관에 설비건설업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각종 논리와 자료를 통해 겸업제한 폐지의 부당함을 적극 건의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반·전문·설비 등 각 주체 간 한치의 양보도 없는 첨예한 대립과 갈등이 이어졌고, 우리협회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정부도 입법예고 과정에서 우리협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전문, 일반만 동의하면 된다고 생각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나 우리협회는 이에 굴하지 않고 국회 건설교통위 의원들을 만나 기계설비의 특성을 설명하고 우리협회의 홍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국회의원들이 기계설비의 특성을 이해했고, 기계설비를 건설업의 4대 중심축인 토목·건축·기계·전기 중의 하나인 공종으로 확실하게 인식시킨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지난해 건산법이 개정되었고, 기계설비만 4년 유예라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설비가 25개 공종 중 별도의 공종으로 대우받았다는 것에서 큰 의의를 갖습니다. 이같은 성과를 거둔 것은 우리협회가 작지만 하나로 똘똘 뭉쳐 힘을 발휘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번 건산법 개정을 계기로 우리협회가 이익집단으로서 우리업계의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했고, 대내외적으로 작지만 강한 협회로 인정받았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저 개인으로는 큰 보람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 4대 사회보험 현실화

“그동안 우리업계에 최대 부담이 되었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등 4대 사회보험료를 공사원가에 반영시키는 성과를 거둬서 따라 공사원가에 사업주 부담분을 보험료가 반영되어 전문건설업계의 자금부담을 완화시켰습니다.”

그동안 우리업계에 최대 부담이 되었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등 4대 사회보험료를 공사원가에 반영시킨 것도 큰 성과였습니다.

국민·건강·산재·고용의 4대 보험료는 공사원가의 6~7%를 차지하고 있으나 공사원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그동안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해 우리업계의 기성실적은 11조원에 육박했습니다. 여기서 4대 보험금의 부담률이 약 7% 정도면 7천7백여원이 됩니다. 과연 7천7백여원을 우리업계의 회원사가 부담하고도 존재 가능한 회사가 과연 몇 개 업체나 될 것인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회장인 저로서는 이러한 고민 앞에서 눈앞이 캄캄했고, 어떻게든 업계가 부담하고 있는 부분을 개선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협회는 청와대 상생협력회의에서 대통령께 4대 보험료 원가반영을 직접 건의하였고 건교부장관과의 간담회 등에서도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공공부문은 작년 1월 1일부터 공사원가에 반영되었고 민간공사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공사원가에 사업주 부담분 보험료를 반영함으로써 전문건설업계의 자금부담을 완화시켰습니다.

▶ 일반건설 산재은폐 폐지 PQ제도 개선

“산재발생시 PQ감점제도를 폐지하여 그동안 산재가 발생할 경우 일반건설에서 하도급업체에게 은폐를 강요하던 관행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산재발생시 PQ감점제도를 폐지하여 그동안 산재가 발생할 경우 일반건설에서 하도급업체에게 은폐

를 강요하던 관행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하도급업체가 산재비용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부당함을 막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업역확대

“지난 해 신규 사업분야인 시스템에어컨 설치공사, 지열냉난방설치공사, 자동원격검침 설비공사, 지능형 제어시스템 설치공사 등을 기계설비공사업역에 추가시켰습니다.”

우리협회는 지난 해 신규 사업분야인 시스템에어컨 설치공사, 지열냉난방설치공사, 자동원격검침 설비공사, 지능형 제어시스템 설치공사 등을 기계설비공사업역에 추가시켰습니다.

특히 자동제어 분야는 그동안 전기·통신과 업역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업역을 명문화 함으로써 자동제어분야의 업역을 확고히 하였습니다.

▶ 설비업계 최초로 금탑산업훈장 수훈과 자랑스런 건설인상 수상

“지난 2005년 건설의 날에는 정승일 명예회장이 우리 업계 최초로 금탑산업훈장을 수훈하였습니다. 이로써 금탑훈장은 일반업계만의 영역이 아닌 전문업계에도 고루 분포되는 물꼬를 텃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05년 건설의 날에는 정승일 명예회장이 우리업계 최초로 금탑산업훈장을 수훈하였습니다.

우리업계가 금탑훈장을 받은 것은 정승일 명예회장이 우리업계 최고의 상훈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을 갖고 노력했으며, 또한 많은 분들이 노력한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부산으로 내려가 건설협회의 권홍사 회장과 담판을 지은 것은 금탑훈장의 물줄기를 우리업계로 바꾼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로써 금탑훈장은 일반업계만의 영역이 아닌 전문업계에도 고루 분포되는 물꼬를 텃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난 해 홍평우 명예회장이 ‘자랑스런건설인상’

을 수상한 것도 우리업계의 위상이 한층 높아진 것을 의미합니다.

자랑스런건설인상은 10년마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건설산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 온 건설인들에게 주는 상으로 지금까지 고 정주영 회장을 비롯하여 5명의 건설인에게 수상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받기 어려운 상을 우리업계 최초로 홍평우 명예회장님이 수상한 것은 우리업계가 건설산업에서 확고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주최측은 “기존에 50년 이상 건설업계에 몸담았던 사람에게만 이 상을 주는 것”이라 하였고, 저는 이에 맞서 “이러한 규정으로는 태동한지 30여년의 역사밖에 안되는 전문건설업계와 설비건설업계는 받을 수조차 없는 것”이라며 “이러한 논리는 전문과 설비업계에는 아예 주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강력하게 어필하였습니다.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이 상이 우리업계에 주어졌던 것입니다.

▲ 재임시 상·훈 현황

상·훈	개수
금탑산업훈장	1
은탑산업훈장	1
동탑산업훈장	1
석탑산업훈장	1
산업포장	3
대통령표창	2
국무총리표창	1

▶ 조합의 성과

“제가 조합 운영위원장에 취임한 후 3년 동안 2차례에 걸쳐 보증수수료율을 최대 55%까지 인하함으로써 조합원의 부담을 경감시켰고, 부산·경남설비건설회관 개관으로 조합은 수익사업 확대와 부산·경남·대구지역 설비인들의 커뮤니케이션 및 비즈니스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조합 운영위원장에 취임한 후 3년 동안 2차례에 걸쳐 보증수수료율을 최대 55%까지 인하함으로써 조

합원의 부담을 경감시켰습니다. 또한 창립시에 비해 2배의 자본금 증가, 신용거래 전면 실시, 인터넷 보증서 발급 등 조합원에게 한차원 높은 서비스 제공과 업무의 신속성이 향상된 것도 큰 성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해 말 부산·경남설비건설회관 개관으로 조합은 수익사업 확대와 부산·경남·대구지역 설비인들의 커뮤니케이션 및 비즈니스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조합이 설립된 후 12년 동안 조합의 감사와 부위원장, 운영위원장 등을 맡으면서 조합의 업무를 보았습니다.

조합은 이제 창립 초기의 투자 단계에서 벗어나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개방될 경우에 대비하여 조합원에게도 이익을 환원해 줘야 경쟁력이 강화될 것입니다. 지속적인 투자를 조합원에게 유도한다면 조합은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으며, 조합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기 힘들 것입니다.

▶ 앞으로 하시고 싶은 일은?

“지난 3년간 협회 일에 몰두하느라 다소 등한시 했던 회사 일에 열성을 쏟을 생각입니다. 또 3년 동안 협회 일을 하면서 얻은 경험을 우리업계 발전에 환원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울 생각입니다.”

무엇보다도 본연의 업으로 돌아가서 회사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난 3년간 협회 일에 몰두하느라 회사 일을 다소 등한시 하여, 우리 회사 임직원들에게는 늘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회사 발전에 열성을 쏟을 생각입니다.

또한 3년 동안 협회 일을 하면서 얻은 경험을 우리업계 발전에 환원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울 생각입니다.

그동안 바쁜 업무 때문에 만나지 못했던 지인들도 만날 것이고, 못다 읽었던 책도 읽으며 여가생활을 즐기겠습니다.

또 정도경영과 나눔경영도 실현할 생각입니다. 